

“우유요리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

포천시 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회장 이취임식

포천시 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회는 3월23일 오후2시 서울우유 동북부낙농지원센터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영회 포천시 부시장, 정종근 포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백강기 서울우유동북부낙농지원센터 상무이사,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희동 포천검정연합회 회장, 이광용 아름다운농장가꾸기 대표, 배인호 포천낙농연합회 회장, 서울우유 이상민 이사 등 내빈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은미(영천목장)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낙농육우협회여성분과 포천 회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우선으로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우의를 돈독하며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신임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모르고 부족한 것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열심히 배우며 회원 여러분

과 함께 포천 여성 낙농 인으로 우유요리를 적극적으로 홍보 할 것이며 낙농육우협회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회는 2003년 출범해 산정호수 여새꽃 축제에서 서울우유 홍보는 물론 축산페스티벌, 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우유요리 홍보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분과회는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의 부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회원은 100여 명이며 각 읍면동별 지부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한편, 여성분과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인애 고문(갑배목장) ▶이은미 회장(영천목장) ▶박명순 부회장(원주목장) ▶유이순 부회장(삼남목장) ▶이복자 부회장(소파목장) ▶조명순 감사(미래목장) ▶장명숙 영종지부장(산밭목장) ▶한순정 송우지부장(영정목장) ▶윤성희 가산지부장(자영



한국낙농육우협회 여성분과 포천분과회장 이·취임식 2007. 3. 23

제5대 김영구 국회의원 別世

포천출신 포천제재소 경영, 포천성당 회장 역임



국회는 이어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6월23일 공포)이

4·19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1960년6월15일 내각책임제 개정 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임명되었다. 국회는 이어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법(6월23일 공포)이

무차관(당시는 차관이 2명 사무차관 등)으로 포천 출신 청년들을 내무부 산하 경찰 공무원으로 추천 받도록 하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학력으로는 일본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유명대학인 고려대, 동국대 법학부 교수를 역임하는 등 교육계에도 거물이었다. 당선 후 내무부 정무차관을 역임하였으며 헌정회 운영위원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김건(전 대한 일부 미늘 상무) 김연(사업) 김준(전 인천 전우 상무) 김정씨등 3남매를 두었으며 발인은 3월22일 9시이고 향년 88세이다. 김창중 수필가 본지 지문위원회 고문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④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프로야구의 시범경기가 끝났고 프로야구와 연준리가 장기 레이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흥분과 기대가 가득하다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포천에서도 인근 지역의 8개 팀이 모여서 각각의 기량을 뽐내고 우승을 위하여 멋진 리그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포천YMCA리틀야구단이 순수한 미국식 리틀의 취미활동으로 건강과 희망을 우리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새로

우리 홈런 한번 쳐봅시다!

대회에도 참가하여 야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타 도시를 이기는 등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적이 반이라 이제는 많은 동우인들과 전국의 25개 밖에 없는 어린이 리틀 야구단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포천에도 있습니다. 포천사회인 야구리그의 기금이 우리 리틀야구단에 지원되면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포천YMCA리틀야구단이 순수한 미국식 리틀의 취미활동으로 건강과 희망을 우리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새로

우리 홈런 한번 쳐봅시다!

운 경험은 장차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후배들과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과 먼저 살아온 선생님의 할 일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육에 대하여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자신과 가족을 지키며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천은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시로서 평가받기에는 경제와 교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낙후된 것이 많은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규임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바닷물과 특색 있는 후배들의 모습이 청춘과 희망이 아닌 견제와 대립으로 만들어진 지도자들의 책임은 후배들을 바보로 만들고 재앙을 몰려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만이 살길이다.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를 위하여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늦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홈런 한번 쳐봅시다. 문의: 011-242-0869

웰빙 부사의(不思議)

지식(知識)

지식(知識)하면 사람들은 ‘아는 것’을 생각한다. ‘그 사람 지식이 풍부하다’ ‘그 사람 지식수준이 높다’ 하면 그 사람 ‘아는 것’이 많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식은 아는 것이다. 여기서 지(知)는 아는 것이요, 식(識)은 인식하는 것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생물적(生物的)인 반응이요, 살아있다는 증거다. 의식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의식을 생물적인 반응이요, 살아있는 증거로 보는 것이다.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을 놓고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도 이때문이다. 그렇다면 식(識)과 지(知)는 어떤 관계인가? 식은 지의 선행조건(先行條件)이다. ‘식이 있어야 지가 생기고 식이 있어야 지가 쌓인다.’ 그래서 의식(意識)이

‘아는 것’

중요한 것이다.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생물적(生物的)으로 의식이 있어야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깨어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식중(食蟲)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다. 밥만 축내는 사람이란 뜻이다. 밥만 축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밥값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밥 흘려 일하는 것이 최고인 미덕(美德)이기 때문이다. 밥 흘리는 것을 싫어해서 안 된다.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도 안 된다. 밥 흘리며 일하는 농부를 보라! 밥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라! 행복하지 않은가? 자랑스럽지 않은가? 건강(健康)과 부(富)를 한꺼번에 이루니 얼마나 좋은가? 건강과 부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밥 흘리며 일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인식하기 바란다. 지(知)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첫 단계가 배워서 아는 학이지지(學而知之)이

‘아는 것’

다. 세계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배웠다. 그들이 아는 것은 모두 학이지지(學而知之)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학교(學校) 공부를 통해서 배웠든 독서(讀書)를 통해 배웠든 모두 배워서 아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학이지지(學而知之)를 통해서 배웠다. 두 번째 단계는 깨이지지(覺而知之)이다. 깨달아서 안다는 것이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것이다. 그 깨우침을 위해서 면벽(面壁)을 하고 선방(禪房)에 드는 것이다.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다.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산사(山寺)에서 학승(學僧)보다 선승(禪僧)을 더 우러러 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생이지지(生而知之)이다. 나면서부터 안다는 것이다. 달리아 라마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전생(前世)의 지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것이다. 전생의 지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알고 면벽(面壁)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다. 구세산방(救世

이규임

神方)이란 묘방을 주고 간 일산(一山) 김인훈(金一勳) 선사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였다. 살아생전에는 생이지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른다. 사후에야 아, 그 사람이 생불(生佛)이었구나! 하고 탄식한다. 네 번째 단계는 영이지지(靈而知之)이다. 영이지지만 계시(啓示)를 받아서 아는 것이다. 정역(正易)을 주고 간 김일부(金一夫) 선사 같은 분을 말하는 것이다. 김일부 선사는 말한다. 정역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며칠 몇 밤을 눈앞에 나타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도 있기에 옮겨 적었음을 밝힌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정역이다. 정역이란 지구가 바로 서서 운행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알려준 역서(易書)이다. 계시문(啓示文)이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지’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 각자의 지(知)는 어느 단계인가? 한번 되돌아볼 일이다.

Essay

살아보고 싶은 곳 제주도



윤순옥 포천의제민회회로

제비가 날아오고 야산 진달래가 피면 봄이구나 생각하며 지낸 어린 시절도 있는데... 이제는 봄을 찾아 포천에서 아침식사하고 제주도에 유채향의 봄을 음미하며 점심식사를 즐기니 이것만으로도 환상이라고 해야 할 만큼 기분은 고조되었고 어디 그 뿐인가 1~2년에 한번씩은 와 본 곳이지만 올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 제주도인 것 같다. 바람과 물과 여자가 많다는 그 옛날의 불모지에는 귀양지로 적적이라 많은 죄인들을 유배시킨 곳으로 알고 있다. 오늘의 제주도는 가는 곳마다 넘쳐나는 인파와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잘 보인다. 특히 한 농부의 삶과 꿈을 집념으로 일구어 낸 ‘생각하는 정원’이란 곳이 있다. 성영범 원장님의 투혼을 담은 이집엔 딸피로 피워낸 아름다운 꽃나무와 분재 그리고 정원수, 아무리 봐도 다 죽은 고목 나무인데 나무 위에선 초록의 싱그러움 없이 탐스럽게 꽃의 형상으로 피어나 있다. 그 넓은 정원에 수백 그루의 나무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보는 이의 행동을 작게 만든다. 어쩌면 나는 이 아름다움 정원의 꽃나무 아래 한 삼거리의 가지라도 지닐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화분 안에 뿌리를 담고 여찌 저리도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하는 것이 항상 의문이었는데 몇 년에 한번씩 뿌리를 다듬어 주어야 한다는 걸 그래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내가 생각한 기원 기술을 넘어 고난도의 정성이 필요한 것 같다. 제주도의 날씨와 토양. 이 모든 것이 정원을 가꾸기에 적합이 못했지만 집념의 투혼이 보여준 아름다운 정원에 세계 정자들이 보내는 감탄의 찬사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흐린 날씨와 바람 때문에 제대로 감상하기엔 무리였지만 날씨마저 화창했으면 아마 그곳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원을 뒤로하고 서귀포 시내로 돌아오니 새로운 명소에 닿았다. 바다가 아닌 아름다운 요새 같은 곳. 화산석 검은 안벽이 양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취색 고운 물을 길게 드리우니 안벽사이사이 푸른

나무들의 수채화 같은 풍경! 한 옆에 떠 있는 햇빛유람선(열명 정도는 관리인도 보이지 않고 줄이 걸려 있기에 혼은 나중에 나고 줄을 당겨 삼기 급한 몇 사람이 타고 있었다. 가지도 오지도 않고 제자리에 멈춰서만 마음은 벌써 비취색 물길 따라 가고 있었다. 바다가 아닌 환상의 요새 같지만 뒤엔 저 멀리 잔잔한 파도의 너울이 보인다. 잠시라도 머무르며 살고 싶은 곳. 난 태어난 곳도, 출가해 사는 곳도 바다와는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일까? 그곳에서 정원을 빼앗아 간다면 1일 생활권인데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지만 또한 쉽지 않은 일이 여행이다. 2박3일 뒤에 가겠다. 제주도도 이루할 기회가 있으면 서슴치 말고 짐 챙겨 떠나보리라 마음 다져본다. 어느 봄날 꿈처럼...

자유기고

향기로운 삶



박혜자 관동대학교 교장

오늘은 즐거운 봉사하는 날. 아침을 여는 소리가 활기차다. 하나 둘 모여드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의 모습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간 배려를 해주는 천사들이다. 효사랑 할머니들의 목욕봉사, 남사당 장애우들의 목욕봉사, 청소봉사, 세탁봉사 등 각기 나누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다 보면 3시간 정도면 거뜰하다. 얼마나 구석구석 열심히 할 것인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작년 이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2007년도에도 목욕침대 2개를 구입해 기증했고 어룡동 삼선해대 김 공장에서 김 6박스를 제공해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효사랑, 남사당, 창 길잡이의 집 (소홀함에 각 2박스씩 나눠 드렸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알차게 보람 있게 활용하고 있어 마음도 기쁘고 두 배다. 박영태 사무국장님의 후회해하시는 미소와 땀 흘린 후에 맞이한 경복궁의 썸뽕 맛은 끝말이었다. 국장님이 베푸는 음식이라서 더욱 맛이 있었나보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수 있는 안식처로 발돋움 해본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포천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의 모습에서 향기가 난다.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다 보면 3시간 정도면 거뜰하다. 얼마나 구석구석 열심히 할 것인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작년 이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2007년도에도 목욕침대 2개를 구입해 기증했고 어룡동 삼선해대 김 공장에서 김 6박스를 제공해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느끼게 하고 있다. 효사랑, 남사당, 창 길잡이의 집 (소홀함에 각 2박스씩 나눠 드렸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며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알차게 보람 있게 활용하고 있어 마음도 기쁘고 두 배다. 박영태 사무국장님의 후회해하시는 미소와 땀 흘린 후에 맞이한 경복궁의 썸뽕 맛은 끝말이었다. 국장님이 베푸는 음식이라서 더욱 맛이 있었나보다.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베풀 수 있는 안식처로 발돋움 해본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포천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의 모습에서 향기가 난다.

마라톤 체험기

풀코스 30분 단축 4시간48분53초

이명순 주부영기재단 소울스부장 서울을 떠나 포천으로 온 지 삼십여년. 몇 곳도 아니면서 한 번 가지 어렵다. 2005년도에 청계천 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새벽 5시30분에 잠잠을 타고 혼자서 서울에 가보고는 이곳을 내가 달리게 될 줄은..... 감회가 새롭다. 청계천을 돌아 동대문이 보인다. 벨레비전과 신문을 통해서 마라톤 매니아들 모습만 보았지 내 자신이 서울 시가지지를 뚫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난 58년 개띠다. 같은 연배의 마라톤러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도 나누며 파이팅도 외쳐주며 달렸다. 58년 개띠들의 5월5일 58km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한다. 자신이 없어서 용기가 나질 않아 꿈도 꾸지 말아야지. 10km, 20km 무난히 지나니 이봉주 선수가 2시간48분4초로 풀코스했다고 써 있는 것을 보

고 처음엔 힘내라는 응원으로 하는 소리 줄 알았다. 25km 지나고 보니 정말이네. 포마를 고문님께서 페이스 메이커 해 주신다니 군자역류 되었을까 질주하시는 것이다. 아! 이제부터 혼자구나. 완주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래도 기다려주는 분들과 응원해주신 영진 사장님, 직원들을 생각하니 열심히 뛰자는 마음이였다. 30km를 지나 물로만 배 채우자 하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이다. 한 컵의 물을 마셨더니 배가 아파 온다. 35km 잠삼대교가 보인다. 작년 동여배 응원하러와서 날씨가 너무 추워, 입술이 부르르치고 고생하던 추억이 떠올랐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무난히 완주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40km부터는 열심히 뛰었다. 길거리 응원단들에게 손을 흔들며주는 여유도 생겼다. 41km. 5시간 안에 들어가야



자유기고

가산초등학교 44회 山行



이은미 주부영기재단 이사

가산초등학교 44회 졸업생이며 아이들을 모교에 보내는 학부모로 가산에서 자주 얼굴 보는 친구 명희, 정희, 홍희, 결혼 전인 규율이 성일리와 쌍둥이 같이, 경북중학교 졸업 후 28년 만에 처음 만난 복희, 정희를 만나서 정말 반갑고 즐겁다. 정희는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며칠 몇 밤을 눈앞에 나타나 사라지지 않고 그대도 있기에 옮겨 적었음을 밝힌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정역이다. 정역이란 지구가 바로 서서 운행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알려준 역서(易書)이다. 계시문(啓示文)이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지’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 각자의 지(知)는 어느 단계인가? 한번 되돌아볼 일이다.

운영하는 재원이가 등산양발과 자리를 준비하여 우릴 기다렸다. 비싼 일로 함께 하지 못함이 아쉽다.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11시 30분 드디어 대문산에 도착했다. 가산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가을 단풍 산행을 할 때는 사람이 많아서 케이블카를 타지 못하고 중간정도에 산에 오르다 내려 왔었다. 이번이 두 번째 산행으로 정상등반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돌계단과 가파른 철 계단을 걸어 구름다리 통과 1시간 가량 산행 후 드디어 정상 마천대에 도착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웅장한 바위들이 넓게 그려 놓은 한 폭의 병풍속 그림처럼 아름답다. 간단하게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내려와 대전에 사는 세우이가 준 비벼 준 식사를 맛있게 먹고 노래

하며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어린 적 생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세우이는 대전에서 오렌지 산행을 해 친구들과 함께하며 헤어지기 아쉬워 잠시라도 함께하기 위해 대전에서 친구들과 가산으로 향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의정부에서 직장 생활 할 때 나는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세우이는 2층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우리 서머타임에 보냈다. 하지만 나이를 먹었나보다. 친구가 그렇고 보고 싶고 만만하면 반갑다. 이번 산행의 좋은 추억 간직하며 다음 산행 때는 참석 못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친구들과! 건강하고 사랑한다.